



천일염·시금치·함초·돌김·새우젓

신안 웰빙 특산물 추석선물 인기

신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과 함초 등 농수산물이 추석 명절선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청정지역 신안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과 건강식품은 시금치와 함초, 새우젓, 돌김, 천일염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신안 시금치는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갯벌 토양에서 한겨울의 찬 바닷바람과 눈서리를 견디며 땅바닥에 붙어 옆으로 퍼진 포복형으로 생장 환경 때문에 잎이 두꺼워 삶아도 흐물거리지 않고 씹히는 맛이 특징이다. 함초는 청정염전에서 재배한 생초를 최상의 상품으로 유지하고자 영하 40도이하에서 진공 냉동동결시켜 건

조한다. 위생적인 시설과 가공공정을 통해 신선하고 깨끗한 제품으로 동절건조를 통해 생산된 제품은 맛이나 영양·효소·미네랄 등의 파괴가 극히 미미해 흡수율이 높고 복원성이 빨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서해안 작은 포구 일자도 전장포 근해에서 잡은 새우를 천일염으로 담궈 만든 새우젓은 오젓과 육젓, 추젓으로 구분된다. 겹집이 얇고 살이 많으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돌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갯벌을 이용한 재래식 방법으로 양식해 맛과 영양분이 뛰어나다. 무공해 건강식품으로서 각종 비타

민과 미네랄·철분 등이 고루 함유돼 소화흡수에 좋고 항암(抗癌) 성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일염은 서해안의 바닷물을 담수 정화해 햇빛·바람·공기의 자연조건을 이용해 생산된 소금으로 미네랄이 3배 많고, 짠맛은 10% 이상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강식품들은 비타민 A와 철분·칼슘·미네랄·섬유질들이 풍부해 어린이와 임산부, 고혈압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항암제 성분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 생산되거나 염분으로 병충해가 전무해 화학약품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무공해 식품인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처럼 안전한 건강식품으로 가격이 저렴해 경기침체와 잇따른 태풍피해로 과일과 전복 등 각종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웰빙시대에 걸맞게 신안에서 생산되는 건강식품들이 실속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지역의 대표적인 5대 농수산물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실명제를 실시하고, 연구 검증이 된 만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며 “부담없는 가격으로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기에 완성맞춤으로 전국에서 주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물문화관에서 '젬베' 배워요 광주·전남지역 초등학생들이 지난 15일 영산강 송촌초에 자리한 물문화관에서 아프리카 타악기인 '젬베'(djembe)를 배우고 있다. 이번 '강물따라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은 K-water 영·섬 통합물관리센터와 국립민속박물관 공동 주최로 열렸다. (K-water 전남지역본부 제공)

순천 21일 조례호수공원에서 귀농귀촌 페스티벌

순천시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조례 호수공원에서 '인생2막 아름다운 도전을 순천에서!' 라는 주제로 2012 귀농귀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순천 귀농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최근 웰빙 로하스 열풍을 타고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이 손쉽게 귀농·귀촌을 살펴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많은 도시민들이 참여해 귀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061-749-8789)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37개국 참가 '부산 국제관광전'

구례군, 홍보관 마케팅부문 최우수

구례군이 최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제15회 부산 국제관광전'에서 홍보관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 국제관광전은 세계 각국 관광산업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캐나다·일본·중국 등 국내외 37개국에서 234개 기관·단체가 참가했다. 이번 관광전에서 구례군은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 압화(押花) 제작체험, 산수유주와 차 무료 시음회, 향토 농·특산물 전시 판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압화제작 체험 프로그램은 어

린이 중심의 가족 관광객과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군은 올 가을 개최예정인 '동편재 소리축제'와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 내년 '산수유축제'를 적극 홍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례군 관계자는 “매년 600만 명이 방문하는 남도의 유일한 관광특구 지역인 구례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보성 '복내 5일장'이 되살아난다

가수 초청 '전통시장 활성화' 공연행사

주암호 생태습지·체육공원 조성 주목

보성군 복내 5일장이 각종 문화 예술 공연 지원 등 '전통 5일 시장 활성화 운동'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보성군 복내면(면장 이상규) 복내시장 상인회는 최근 '복내 5일 전통시장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 라는 주제로 복내면 5일시장 특설무대에서 초대 가수와 마을대표 가수가 참가하는 공연행사를

가졌다. 이번행사에는 지역민들과 시장을 찾은 관광객 100여명이 함께해 잊혀져가는 전통시장에 대한 향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120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복내 5일장은 매월 4·9일 열리고 있다. 1890년께 개설돼 화순군 이양면과 보성군 북부 4개면의 생필

품 거래와 마포(삼배)시장과 가축 시장으로 성행하며 번성해 왔다. 하지만 1998년 광주·전남 특수원인 주암댐 건설에 따른 인구 감소로 침체돼 명맥만 유지해 왔다. 이후 복내면에 주암호 생태습지 공원을 비롯해 천연 잔디구장·케이트볼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복내 전통 5일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복내시장 상인회 장장수 회장은 “복내 5일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개최로 먼민들이 화합된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최근 보성군 복내면 주민들이 5일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흥군 내년도 예산 설명회

현장 주민 의견 청취

고흥군은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달라진 예산제도와 예산편성 방향 설명회를 열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고흥읍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와 달라진 예산제도, 군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제도상 포괄사업(재량)비 편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선정, 절차 등도 함께 설명한다. 또 군은 주민설명회 이외에도 인

터넷과 우편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군은 이번 설명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든 사업예산들에 대해 자체 개발·운용중인 타당성 지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군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만큼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이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서남권 기업 54%
추석 상여금 지급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남 서남권지역 근로자들의 휴무일수는 평균 4.1일만, 상여금은 통상급여의 66%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가 추석을 앞두고 서남권지역 주요 제조업 80개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추석 휴무일수는 4.1일로 집계됐다. 3일간 휴무하는 기업이 54.4%로 가장 많았고, 5일간 휴무는 33.3%·6일 이상 쉬는 기업도 8.8%로 조사됐다. 상여금은 응답 업체에 54%가 지급할 계획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평균 66%를, 정액 기준으로 평균 28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外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동Set, 다담Set, 우전간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062)224-20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 ·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동 763-4 T.222-2902,3973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할 해본 사람들은 54%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